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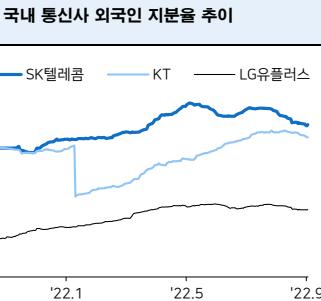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9.19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0.1	-4.4	-2.4	-12.0	10.1	9.5	0.9	0.9	2.2	2.3	
통신업종	-0.7	-3.2	-3.8	-5.4	8.6	7.6	0.7	0.7	6.1	6.5	
SK텔레콤	1.0	2.3	1.0	-9.8	11.2	9.5	1.0	0.9	6.6	6.9	
KT	-4.1	-5.5	-1.2	9.1	7.3	6.8	0.6	0.5	5.9	6.4	
LG유플러스	2.2	-7.3	-16.4	-15.5	7.1	6.3	0.6	0.6	5.6	6.2	
AT&T	-1.7	-9.2	-13.6	-4.5	6.6	6.8	0.9	0.9	7.1	6.9	
Verizon	-2.3	-6.7	-15.9	-18.8	8.0	7.8	1.9	1.7	6.3	6.4	
T-Mobile	-3.9	-4.7	9.7	10.0	56.6	21.2	2.4	2.4	0.0	0.0	
NTT	-2.8	2.9	0.9	10.3	12.2	11.1	1.7	1.5	3.0	3.2	
KDDI	-2.8	2.2	-1.1	7.1	14.4	13.6	1.9	1.8	2.9	3.1	
Softbank	-0.8	-6.1	14.0	10.0	17.7	18.0	0.8	0.8	0.8	0.8	
China Mobile	3.0	-1.4	3.4	-2.6	7.7	7.1	0.8	0.7	8.4	9.7	
China Unicom	2.2	-4.4	1.1	-4.6	6.2	5.5	0.3	0.3	7.9	9.5	
China Telecom	4.1	-3.4	4.5	-7.6	8.2	7.3	0.5	0.5	8.0	9.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KT 46.4% (-0.2%p WoW, -0.9%p MoM)
KT 45.1% (-0.3%p WoW, -0.7%p MoM)
LGU+ 37.3% (+0.0%p WoW, -0.4%p MoM)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 전주 동향

9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6%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LG전자, 1000㎱ 대역을 이용해 320m까지 무선 데이터 전송하는 데 성공, 6G 통신 기술 목표 현실화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23년까지 5G 서비스 도입에 250억 달러 투자 예정. 10월 5G 서비스 개시, 23년 전국 확대 목표.

국내 기관은 SKT 순매수, 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LGU+순매수, SKT, KT 순매도

▣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 부재

10월 중 정부는 Pre 6G 시연과 6G 조기 상용화 위한 신규 기술 전략이 담긴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발표 예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6G 태스크포스' 구성. 미국 민간 기업은 '넥스트G 얼라이언스' 결성해 활동 본격화

5G 통신장비 섹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단기 모멘텀 측면 서진시스템 선호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 주간 뉴스

▶ 6G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다음달 나온다

(전자신문)

-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 대비를 끌자로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을 10월 발표
- 6G네트워크의 지능화·융합화·공간확장 위한 기술 전략, 민관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할 것
- 과기정통부는 26년부터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을 추진, 우주 네트워크 전략, 오픈랜드 포함될 것
- ⇒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은 과기정통부가 도전하는 9천억원의 6G 예타 추진과 함께 진행될 것
- ⇒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에는 Pre 6G 시연과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규 기술 전략이 담길 것으로 관측

▶ LG전자 "통신거리 320m 무선 전송 성공"…6G 시대 준비

(한국경제)

- LG전자, 6G 테라헤리츠(THz) 대역 활용한 직선거리 320m 이상 전송하는데 성공
- THz 대역은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의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LG전자는 6G 기술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어
- LG전자-프라운호퍼 연구소, 6G THz 대역 전력 증폭기 공동 개발해 실외 100m 무선 송수신에 성공한 바
- ⇒ 실외 도심 지역 전반에서 6G THz 통신을 상용화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
- ⇒ 23일 이번 THz 기술 개발 성과를 비롯한 6G 분야 개발 성과 등을 발표할 계획

▶ 5G 서비스 더 빨라지나…정부,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마련 중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 4.0㎱ 대역 주파수(300MHz 폭)를 5G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 논의 중
- 300MHz 폭의 주파수 가운데 일부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가 논의의 핵심.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
- 정부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내놓으면, 통신사들의 주파수 확보 경쟁 심화될 가능성
- ⇒ 내년 중으로 정부가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 11월부터는 이통 3사가 3.4 ~ 3.7㎱ 대역의 총 300MHz 폭을 100MHz씩 사용하게 될 예정

▶ 6G, 글로벌 각축전 시작

(전자신문)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6G 이동통신 계기로 통신분야 투자 분격화되는 모습
- EU는 6G 연구개발을 위한 6G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026년까지 약 3천억원 투입 계획
- 또한, '6G 스마트 앤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약 1조원 투입하기로 결정
- ⇒ 중국 과학기술부(MOST), 6G 연구 관련 국책연구에 2027년까지 약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
- ⇒ 독일, '6G 이니셔티브' 발표, 향후 5년간 9천억원 투입, 일본은 2030년까지 7천억원 투입 예정

▶ 이통3사, 빅테크 기업 변신 가속

(파이낸셜뉴스)

- 이동통신3사가 신사업 관련 지분 교환 등 테크핀, 모빌리티, 콘텐츠 분야 협력에 주력
- SKT는 'AI 서비스 컴퍼니',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 LGU+는 '디지털 혁신기업'
- SKT와 KT가 각각 하나금융 및 신한금융과 지분 맞교환 및 전략적 제휴 맺으며 신사업 분야 모색
- ⇒ 모빌리티 분야 역시 도심형공고통(UAM)과 맞물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
- ⇒ 콘텐츠 중심의 구독 플랫폼도 강화, 5G 사업의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평가

▶ LGU+, 통신→플랫폼 사업 전환…'U+ 3.0' 시대 선언

(디지털데일리)

- 라이프스타일-놀이-성장케어-웹 3.0 등 4대 플랫폼 중심 신사업 추진
- 2027년에 비통신사업 매출 비중을 40%까지 확대, 기업가치 12조원까지 성장 목표 제시
- 5년후 700만명이 이용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
- ⇒ U+tv는 실시간 채널과 OTT의 데이터를 통합해 새로운 솔루션 선보일 예정
- ⇒ 신사업의 플랫폼화 본격화되면, 광고, 커머스 등 다른 사업영역의 플랫폼 전환 가속화할 계획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52,400	8.3	12.5	13.0	1.2	1.3	0.7	0.9	3.9	4.0	3.9	3.8	8.6	9.7
	KT	35,900	6.8	18.5	19.2	1.3	1.4	0.9	1.0	4.0	4.1	3.3	3.2	8.2	8.3
	LG유플러스	11,450	3.6	10.2	10.6	0.7	0.8	0.5	0.6	2.6	2.7	3.2	3.0	8.8	9.6
미국	AT&T	16.7	119.3	126.7	122.4	22.6	23.9	18.3	18.1	42.1	42.7	6.4	6.3	12.6	13.4
	Verizon	41.3	173.2	136.4	138.2	30.7	31.8	21.0	22.0	47.9	49.1	6.7	6.6	24.7	22.6
	T-Mobile	140.0	175.5	81.0	83.6	7.5	13.9	3.5	8.1	27.0	29.3	9.3	8.5	5.1	12.6
일본	NTT	3,845	97.4	93.4	88.0	13.6	12.9	8.7	8.5	25.2	23.9	6.9	6.6	14.6	14.3
	KDDI	4,296	69.2	41.6	38.7	8.1	7.7	5.1	4.9	13.9	12.7	6.2	6.2	13.8	13.7
	Softbank	5,458	65.7	47.3	45.2	-1.4	-6.8	4.4	5.2	4.4	4.4	50.2	45.7	4.7	6.2
중국	China Mobile	51.5	142.4	134.1	143.2	19.0	20.4	18.2	19.6	48.0	50.5	1.7	1.6	10.2	10.5
	China Unicom	3.7	14.5	50.5	53.4	1.9	2.2	2.4	2.7	14.4	15.0	0.6	0.6	4.9	5.3
	China Telecom	2.8	46.6	69.6	74.7	5.0	5.6	4.1	4.5	19.2	20.2	2.4	2.3	6.5	7.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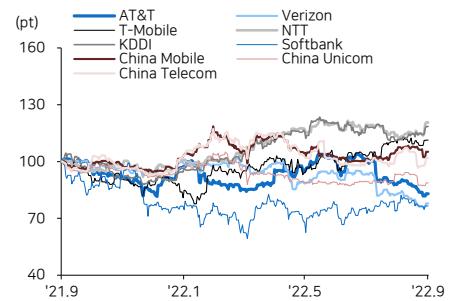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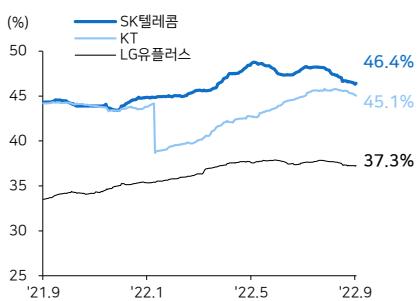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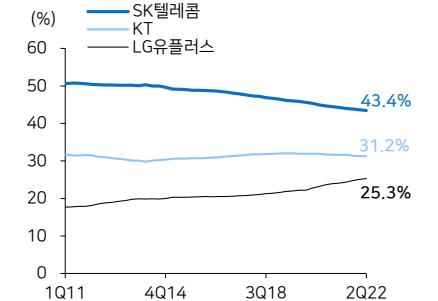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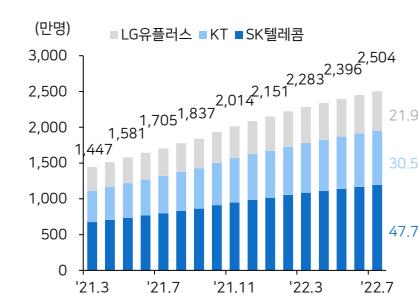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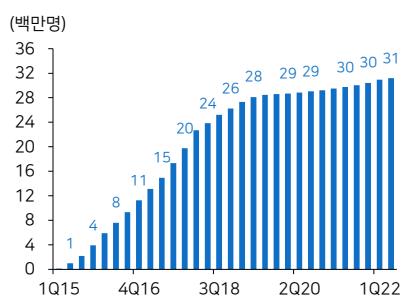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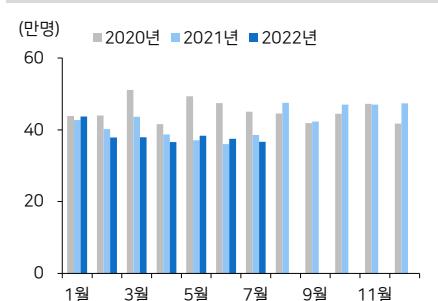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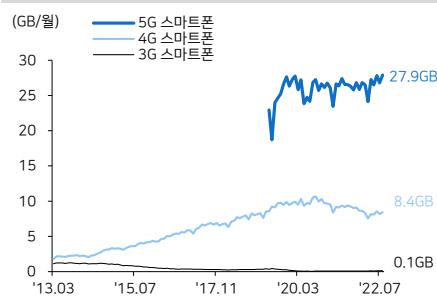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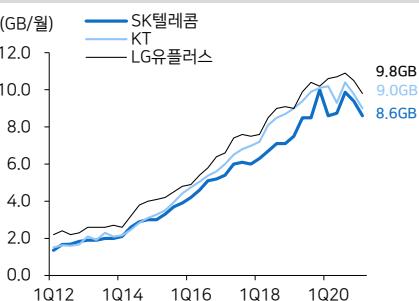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